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同牢宴)所用 器用考  
- 1744年 莊租 獻敬后 1819年 文租 神貞后 嘉禮同牢宴 -

金尚寶 · 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0년 8월 21일 접수)

A Study on Wedding Ceremony Tablewares in  
Gare Dogam Euigwae(1744, 1819)

Sang Bo Kim and Sung Woo Lee\*

T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 Yang University  
(Received August 21, 1990)

Abstract

To analyze tableware in wedding ceremonies of royal prince(1744, 1819) of Chosun Dynasty, the author studied the historic book-Gare Dogam Euigwae, in which wedding feast dishes for King and prince in Chosun Dynasty were describ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For wedding feast dishes for prince, black lacquered table was used, and for King's wedding feast red lacquered table was used. 2. In wedding ceremony red silk table cloth was used. 3. Tables arranged in wedding ceremony had high legs. 4. Tablewares used in wedding ceremony were footed dishes. 5. Wedding ceremony arrangement was made up of four kinds of main table, a small boiled beef table, a large boiled beef table, four small round tables, a dining table, a candle stick, a incense holder, a vase with vaseholder and a liquor bottle with a holder.

I. 序 論

나라에 잔치가 있을 때 궁에서는 정해진 치수와 규격에 의하여 各種 器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sup>1-5)</sup> 이들은 기록 뿐으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宮中 嘉禮 中 왕세자 가례의 同牢宴에서 使用한 器用을 儀軌를 통하여 究明함으로써, 宮中 宴會 時의 器用 文化를 宮中の 食文化와 연결시켜 밝히고, 이것을 現代의 食文化에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同牢宴所用 器用에 대한 考察

1. 床 類

오늘날의 床文化는 고구려의 무용총(4세기)의 무덤 벽화에서 보이는 立式밥상과, 각저총(5~6세기)의 무덤 벽화에서 보이는 座式밥상에서 적어도 입식과 좌식의 밥상이 4~5세기에는 같이 쓰였으나, 온돌의 보급화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 이후, 좌식밥상이 고정되었다 한다.<sup>6)</sup> 「삼국사기」 雜志 職官條에 통일신라시대에는 机와 盤床의 제작을 다스리는 机櫃典과 机盤局이라는 부서가

1) 李盛雨, 朝鮮王朝行幸食儀軌, 미원문화재단부설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지원, 1989.  
2)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미원문화재단부설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지원, 1989.  
3)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미원문화재단부설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지원, 1988.  
4)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下, 미원문화재단부설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지원, 1988.  
5) 國朝五禮儀序例卷之II, 법제처, 1982.  
6) 李盛雨, 동아시아속의 한국, 고대식생활사연구, 향문사, 1991.

있었다는 기록과, 「고려사」禮志에 나타난 물목에 詔案, 書案, 香案, 案牀, 果床, 壽尊案, 花案, 印案, 筆研案 등이 있고 「고려도경」에는 「식사 때에 탁(榻) 위에 앉아서

그릇을 올린 단칠조(丹漆俎)를 사용하며, 俎의 크기는 세로 3尺, 가로 2尺, 높이 2尺 5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불교를 국교로서 삼았던 고려시대의 床文化는 호화스러웠을 것이라 짐작이 가나, 왕조가 바뀐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가 국교로 되면서 엄격한 신분제도가 생겨났으며, 생활용구도 신분의 차이에 의한 격차가 심했으리라 생각된다. 朝鮮時代의 기물을 받치는 도구로는 卓,<sup>8)</sup> 盤,<sup>9)</sup> 床,<sup>10)</sup> 亭, 臺<sup>11)</sup>가 있었으며, 卓은 주거생활이 좌식으로 정착되면서, 전통적인 제사나 의식 때만 사용하는 器用 중의 하나였다.<sup>12,13)</sup> 즉, 卓은 高足床(조스상)으로 현재의 交子床(교자상: 低足床)이다.<sup>14)</sup> 朝鮮朝의 床의 漆은 生漆, 朱漆, 黑漆, 黃漆이 있었으며, 宮에서는 黃漆,<sup>15)</sup> 黑漆, 朱漆을 하였고,<sup>16)</sup> 민간에서는 朱漆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다.<sup>17)</sup> 宮에서 사용하는 대궐 반의 기본 규격은 높이가 9.8~10.5寸, 盤의 직경이 12.4~21寸 내외이며, 盤의 種類는

表 1. 1744年 同牢宴所用 床類

黑漆大四方盤	2
黑漆小四方盤	6內
黑漆小圓盤	6
黑漆中圓盤	12
黑漆雲足行果盤	6
黑漆饌案床	2部
黑漆低足床6代高足床	6
黑漆手盤	14內
黑漆大酒亭	1
倭朱紅小小四方盤	2

表 2. 1819年 同牢宴所用 床類

黑眞漆大四方盤	2立	同牢宴 및 飲福宴 所用	黑眞漆小膳床	2坐	小膳
黑眞漆 小四方盤	2立		紅袖床巾 ③	2件	所用床
黑眞漆中圓盤 ⑦	12立		倭朱紅漆饌案床	3坐	飲福宴
黑眞漆 小圓盤	10立		倭朱紅漆小小四方盤	3立	時三殿
黑眞漆 小圓盤	2竹		紅經光袖三幅單袱	3件	所用床
黑眞漆 大圓盤	2竹		倭朱紅漆中圓盤	3立	
黑眞漆 果盤 ⑥	4立		紅袖4幅單袱	3件	
黑眞漆 行果盤	6立		黑漆大四方盤	2立	四方盤, 中圓盤
黑眞漆 手盤	10立		中圓盤	6立	初味, 二味, 三味 所用床
			Vat : 양조용 등의 큰통		
黑眞漆大酒亭 ⑧	1坐	왕세자용	黑漆 平盤	6立	
黑眞漆 小酒亭	1坐	嬪用	黑眞漆 中盤	1竹	大小膳
黑眞漆 饌案床 ⑤	2坐	同牢宴 所用	黑眞漆 小盤	1竹	所用床
紅袖床巾	2件		倭朱紅漆 大盤	1竹	
黑眞漆 長床 ④	2坐		倭朱紅漆 小盤	1竹	
紅袖床巾	2件		小小四方盤	3立	三殿
黑眞漆 高足床 ①	8坐		3幅紅 綃袱	3件	朝見禮
紅袖床巾	8件		朱漆平盤	6立	所用床
黑眞漆 大膳床 ②	2坐	大膳所 用床	朱漆 果盤	3立	
紅袖床巾	2件		朱紅小盤		習儀時進排用床

7)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89, pp.55~56.  
 8) 이성우,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pp.410~411, 130~131.  
 9)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p.164.  
 10) 上同, p.163.  
 11) 上同, p.163.  
 12) 이성우,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p.130~131.  
 13) 國朝五禮儀卷之III, 법제처, 1981, pp.204~206.  
 14) 名物紀畧, p.6.  
 15)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p.177.  
 16) 上同, pp.97~214.  
 17) 나선화, 1989,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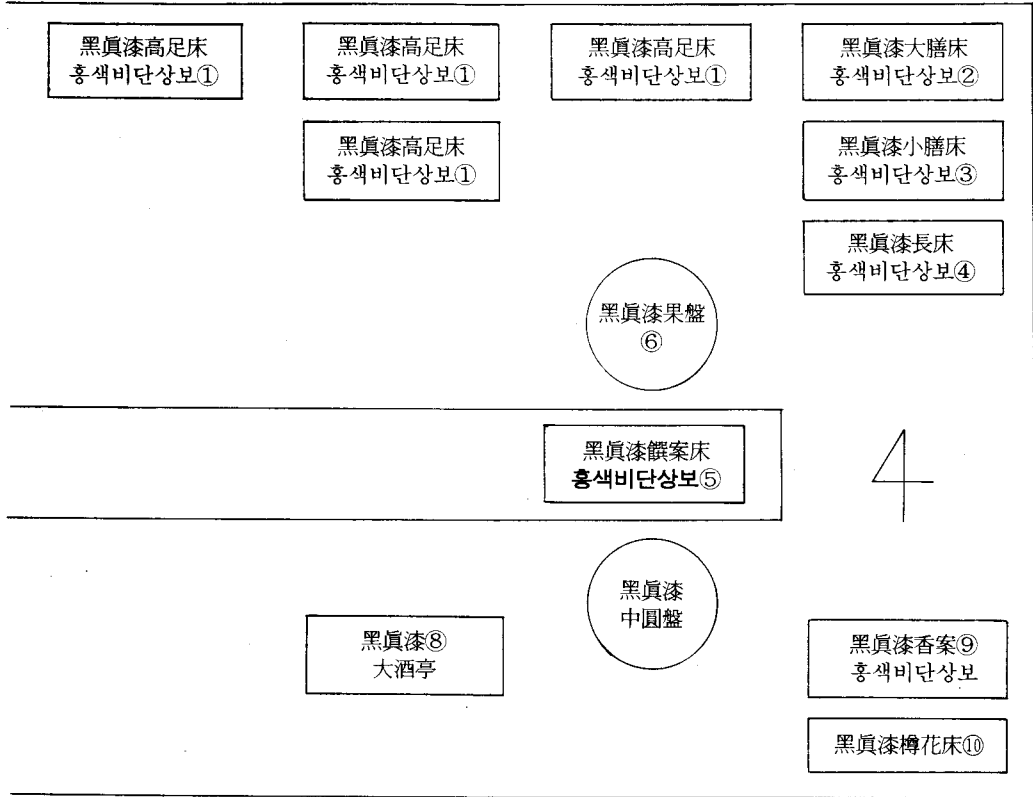


圖 1. 1819年 文祖 神貞后의 同牢宴상과 상보(王世子所用)

원반, 두레반 외에 대궐의 수라상으로 쓰였던 虎足盤, 화형반, 단각반이 있었다.<sup>18)</sup>

表 1은 1744年, 表 2는 1819年의 嘉禮時 所用 床類이다. 前報<sup>19)</sup>에서 밝혔듯이 1749年 「國婚定例」의 제정을 기점으로 宮中 嘉禮床차림의 규모가 달라졌으므로, 表 1과 2의 床의 多小의 차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床의 多小에만 차이가 있을 뿐, 주로 黑漆의 床 또는 盤을 사용한 것은 비슷하다. 前報<sup>20)</sup>의 1819年 文祖 神貞后 同牢宴 非設圖를 참고로 하여, 당시 배설시 사용된 床의 種類를 表 2의 床의 個數와 상보를 중심으로 分析하여 圖로 만든것이 圖 1이다. 따라서 圖 1은 1819年 同牢宴時 어떠한 床과 어떠한 상보를 사용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전체 同牢宴所用床은 圖 1×2), 同牢宴床, 右挾床, 左挾床, 面挾床은 黑眞漆高足床과 홍색비단상보①, 大膳床, 小膳床은 黑眞漆大膳, 小膳床과 홍색비단상보②③, 長空卓은 黑眞漆長床과 홍색비단상보④, 饌案床은 黑眞漆饌案床과 홍색비단상보⑤, 香案

은 黑眞漆香案에 홍색비단상보⑨, 그 외에 黑眞漆果盤 ⑥, 黑眞漆中圓盤⑦, 黑眞漆大酒亭⑧, 黑眞漆樽花床⑩ 으로서, 黑漆의 床과 홍색비단상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⑨, ⑩은 表 5, 7참조). 즉, 王世子の 嘉禮에서는 黑漆의 床과 홍색비단상보를 사용하였음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들 同牢宴所用 床(①에서 ⑩) 이외에 表 2에 기록된 다른 床의 용도를 보면 倭朱紅漆饌案床, 3쪽짜리 밝은홍색비단 외겹보자기를 덮은 倭朱紅漆小四方盤, 4쪽의 홍색비단 외겹보자기를 덮은 倭朱紅漆中圓盤은 飲福宴 時, 倭朱紅漆大盤 倭朱紅漆小盤은 飲福宴에서의 大小膳 所用 床으로서, 각각 三殿께 올리는 용도로서의 상이며, 3쪽의 홍색비단 보자기를 덮은 小小四方盤은 三殿께 朝見禮 時에 올리는 棗栗盤과 暇脩脯盤, 朱漆 果盤은 朝見禮 時 三殿께서 신부인 嬪에게 내리는 큰 상이다.<sup>24)</sup> 表 2에는 朱漆平盤 6이 朝見禮 所用 床으로 나와 있으나 잘못 기재 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同牢宴에서의 왕세자와 왕세자 빈을

18) 上同, p.94.

19)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6, No.1, 1991.

20) 上同.



表 3. 1744年 同牢宴所用 食器

金鳳瓶대신 銀鳳瓶蓋鎖具 ①	1部
銀瓶蓋鎖具 ②	2部
金大瓶대신 鑄瓶蓋鎖具 ⑫	1部
金大瓶대신 鑄高毛介**蓋鎖具 ⑫	1部
金盃대신 鍍盃臺蓋具 ⑬	1部
金爵대신 銅鍍金爵 ⑭	1部
鑄爵 帖	1部
雙耳青玉盞銅鍍金臺具 ⑮	1部
雙耳雲鹿青玉盞銅鍍金臺具 ⑯	1部
雙耳單葉金盞대신 銅鍍金盞臺蓋具 ⑰	1部
雙耳蝸虎青玉盞銅鍍金臺具 ⑱	1部
雙耳熊青玉盞銅鍍金臺具 ⑲	1部
香盃1雙銀粧飾銅鍍金臺各具 ⑳	各具
銀筋	2每伊
鍍小蓋兒	5箇內
銀召兒	
鍍錚盤	8內
銀孤尖	2
鑄丐里	36箇
銀玲瓏匙	2箇
黑漆 大果器	24
黑漆 中果器	40
黑漆 小果器	20
黑漆種子	36
白磁青畫酒海 ㉑	1雙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청동기 문화가 발판이 되어, 8세기경 신라에 鐵鍍典이란 직명을 두어 철과 유석을 관찰할 만큼 발전하였으며,<sup>31,32)</sup> 李盛兩교수는 이 당시 이미 늦쇠사발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33)</sup>

이조시대에는 식생활 용구로서 늦제품이 대중화되어 英祖 때의 實學者 「柳得恭」이 쓴 「京都雜誌」에는 일체의 식탁용기, 요강, 세수대야 전부를 늦쇠로 만들어 일반사람들이 사용한다고<sup>34)</sup> 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鍍器의 種類는 크게 청동주물(순동+주석)과 황동주물(순동+아연)로 나누며, 반상기 등의 식기류는 청동주물인 鍍鐵(동 70~72%+주석 28~30%)로 사용하였고 향로, 향합, 촛대, 화로 등은 황동주물인 豆錫(동 60~65%+아연 35~40%)으로 사용하였다.<sup>35)</sup>

表 4. 1819年 同牢宴所用 食器

銀鳳瓶 ①	1坐	同牢宴 및 飲福宴 所用器皿
銅鍍金爵 ⑭	1箇	
雙耳單葉金盞 ⑰	1雙	
香杯 ㉑	1雙	
銀召兒	1箇	
銀筋	2面	
裴紫的紬1幅襦袢***	2件	
白磁青畫酒海 ㉑	1雙	
鍍器四	70坐	
鍍小蓋兒	1竹	
鍍小蓋兒	15年內	
鍍中蓋兒	20立內	
鍍大蓋兒	15立內	
鍍貼匙	2竹3立	
鍍大貼匙	3竹內	
鍍錚盤	2立	
鍍果器	50立	
鑄丐里	36坐	
鑄大丐里臺具	8坐內	
鑄中丐里臺具	26坐內	
鑄小丐里臺具	50坐內	
鑄種子丐里臺具	34坐內	
鍍貼匙	4竹2立	四方盤, 中圓盤
鍍蓋也	1竹5立	初味, 二味,
鍍錚盤	1竹5立	三味所用
鍍東海	3坐	器皿
鍍沙用	6坐	
各樣銀器四	14件	
紅細苧布4幅甲袱		
白大樸匙	2立	大小膳所用
鍍本樸匙	2立	器皿
銀盞臺具	3部	三殿朝見禮
紅細苧布4幅甲袱	3件	所用器皿
香卓		
沙甫兒	1雙	習儀時
銀盞臺具	1雙	進排

이렇게 보급된 유기도 주로 한국의 기후 풍토적 여건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이 적당한 것이었으므로, 陶磁器도 널리 사용되었다. 李朝시대의 도자기는 明나라의

31) 同上, p.235.

32) 홍정실, 유기, 대원사, 1989, pp.72~73.

33) 李盛兩, 동아시아속의 한국고대식생활사연구, 1991.

\*\*金大瓶을 고모개(高毛介)라고도 한다.

34) 柳得恭, 京都雜誌, 黃憲性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p.581.

35) 홍정실, 1989, pp.6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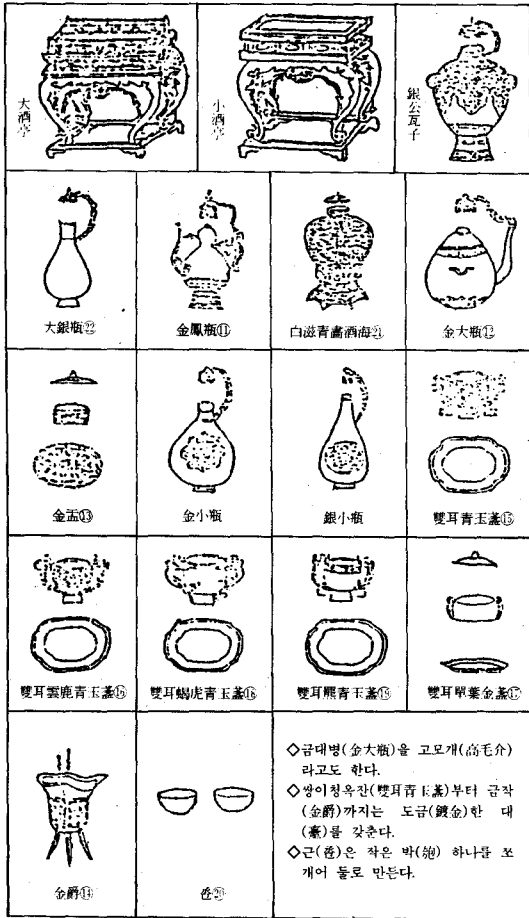


圖 4. 尊爵圖說<sup>37)</sup>

영향을 받은 白磁로서(이조전기: 靑書白磁器, 이조중기에서 末期: 白沙器),<sup>36)</sup> 貼匙(접시), 大貼(대접), 鍾子(종지), 沙鉢(사발), 甫兒(보시기), 白沙瓶과 같은 日常의 식기로서 보급되었다. 즉, 겨울철에만 사용가능하였던 鍮器에 비하여 사철의 사용 식기로서 애용된 것이다.

表 3, 4는 1744年, 1819年 嘉禮時 所用된 器皿으로서, 크게 同牢宴尊爵 器皿과 음식상차림용 器皿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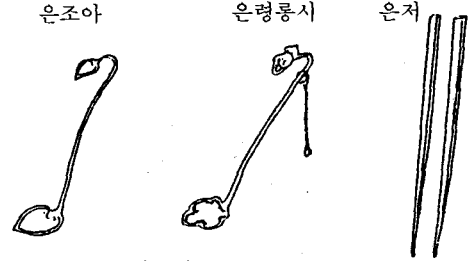


圖 5. 은조아, 은령롱시, 은저

表 3과 4의 ①에서 ②까지는 尊爵時 所用된 器皿으로, 이것을 圖 3에서 尊爵圖說로 표시하였다. 圖 4에 제시된 尊爵圖說은 1474年 成宗 때에 찬정된 國朝五禮儀序例卷之II에서 발췌한 것이다.

1819년이 1744년에 비하여 尊爵時 所用 器皿이 적은 것은 1719年 「國婚定例」 제정 이후 간소화된 때문이며(前報<sup>38)</sup> 참조) 尊爵의 기명이 간소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1474年과 별차이가 없다. 表 3의 雙耳靑玉蓋銅鍍金 臺具는 쌍이청옥잔과 동도금한 잔받침이다.

表 3, 4에서의 器皿에서, 蓋(개)는 頭蓋로서 覆器<sup>39)</sup>, 즉 뚜껑 달린 그릇으로, 鍮小蓋兒는 소합에 뚜껑을 한 유기이다.

勺里(우리)는 中朴桂 藥果 茶食과 같은 조과나 유밀과를 담은 굽다리그릇인데, 접시위에 음식을 피는 높이 만큼 우리가 달려있어 피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한다.<sup>40)</sup> 表 4의 鑄大勺里 臺具는 청동으로 만든 대우리와 대우리받침이며,<sup>41)</sup> 鍮東海는 놋동이,<sup>42)</sup> 鍮貼匙, 鍮襟匙는 놋접시, 鍮錚盤은 놋쟁반, 鍮沙用은 놋사발, 鍮鍾子는 놋종지, 鍮蓋는 뚜껑열린 놋대야,<sup>43)</sup> 또한 沙甫兒는 사기보시기이고, 白大樸匙는 백자로된 대접시이다. 表 3, 4의 기명이 자기보다 유기가 많은 것은 1744年은 1月 20日, 1819年은 10月 13日, 각각 同牢宴이 있었던 것으로 계절적으로 磁器보다 鍮器가 보다 적합하였던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들 그릇의 용도는 크게 尊爵時 및 음식의 배설, 그리고 銀召兒(은조아: 수저)와 같이 個人用으로 나뉘어 지는데, 특히 銀召兒나 銀筋(은젓가락)은 칩자적주 1폭유복(裘紫的紬 1幅襦袂) 즉, 1폭의 자주색비단 보자기로 만든 주머니에 넣었다가 사용하였고 은잔과 은잔받침(銀蓋

36)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昭和6年, pp.26~41.  
 \*\*\* 罌: 자루척, 1폭의 자주색 비단보자기로 만든 주머니.

37) 國朝五禮儀序禮卷之II, 법제처, 1982, p.234.

38) 金尚寶, 李盛雨, 御製國婚定例(1749)에 대한 分析의 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5, No.3, 1990.

39) 名物紀畧, p.5.

40) 홍정실, 1989, p.105.

41) 上同, p.80.

42) 上同, p.109.

43) 朝鮮王朝器皿件記.

表 5. 1744年, 1819年 同牢宴所用 香器類

1744年		1819年	
香佐兒豆錫香 申之臺具	2	豆錫香申之	1雙
鑄香盒蓋具	2部	鍍香盒	2坐
黑漆香坐兒	1雙	黑眞漆香坐兒	1雙
黑漆香案	2部	黑眞漆香案床 ⑨	2坐
		紅袖巾巾	2件
		鑄香爐	2坐

향로 향좌아 향꽃이 향합 爐烟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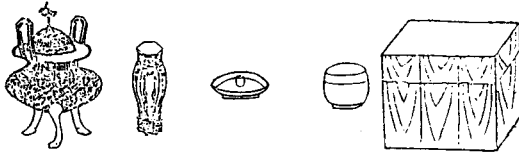


圖 6. 향로, 향좌아, 향꽃이, 향합

臺具) 및 銀器는 홍세저포 4폭갑복(紅細苧布 4幅甲袱), 즉 4폭의 고운홍색모시로 만든 겹보자기에 싸두었다가 사용하였다(表 4참조). 宮에서도 銀器가 소중하였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銀召兒, 銀筋(表 3, 4), 銀玲瓏匙(表 3, 4)는 宮에서 경사스러운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圖 5는 1827年 純祖 27年 慈慶殿進爵整禮儀軌에 기록된 이들의 圖이다.<sup>44)</sup>

3. 香器類

表 5는 1744年 1819年 同牢宴 所用 香器類이며, 圖 6은 朝鮮王朝 宮中進宴儀軌에 기록된 香器類이다.<sup>45)</sup> 이들의 용도는 爐烟床은 香案으로서, 향로를 올려 놓는 床, 香佐兒는 향꽃이를 올려 놓는 받침대, 향합은 향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香은 제사와 경축연이 있을 때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었다<sup>46)</sup> 동회연의 香 뿐만 아니라 朝見禮에서도 香卓이 있음은(表 4) 이 禮에서도 香이 있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1887年 진찬시의 의례 절차를 보면, “상궁은 대왕대비전을 인도하여, 좌에 오르면 爐烟이 오르고, 염이 거처지고...”라 하였다.<sup>47)</sup>

4. 燭器類

表 6. 1744年, 1819年 同牢宴所用 燭器類

1744年		1819年	
燭籠	10部	鐵燭籠	10雙
鑄大燭臺	2雙	鑄大燭臺	3雙
鑄中燭臺	2雙	鑄中燭臺	2雙
鑄剪燭器	2:各蓋剪子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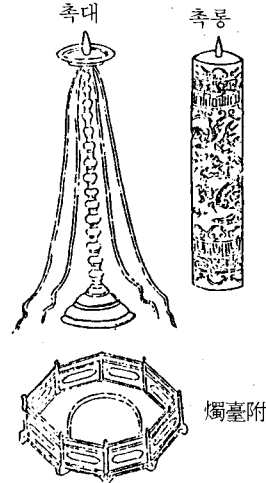


圖 7. 燭대, 燭籠, 燭대부

表 7. 1744年, 1819年 同牢宴所用 樽花類

1744年		1819年	
花樽	1雙	黑眞漆樽臺	1雙
黑漆樽臺	1雙	黑眞漆樽花床 ⑩	2坐
孔雀	8朵	孔雀대신 中水波蓮	8朵
大鳳	16朵	大鳳8朵대신 大紙花	8朵
小鳳	30朵	小鳳대신 小紙花	16朵
白鶴	30朵	白鶴대신 水波蓮	14朵
蘿花草虫	24朵	蘿花草虫	12朵
實果草虫	12朵	實果草虫	12朵
樽花	2朵	樽花	2朵

表 6은 1744年, 1819年 同牢宴 所用 燭器類이다. 圖 7<sup>48)</sup>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燭대 부위에 燭대를 올려 놓고 그 위에 燭籠을 꿰은 것이며, 1744年의 剪燭器는 잘라낸 초의 심지를 담는 그릇이고, 剪子는 剪燭器로서, 촛불의 심지가 타서 길어지면 잘라내는 가위이다.<sup>49)</sup>

44)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pp.133~134.

45) 上同, p.131, 410.

46) 國朝續五禮儀卷之II, 법제처, 1982, p.198.

47) 이성우, 이효지, 進儀儀軌卷之I, 韓國生活科學研究, 1985, p.32.

48)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pp.411, 131.

49) 홍정실, 1989, p.103.

\*\*\*\*청동으로 만든 잘라낸 촛불심지를 담는 그릇, 2개 모두 뚜껑과 촛불의 심지가 타서 길어지면 잘라내는 가위가 구비되어 있음 (各蓋剪子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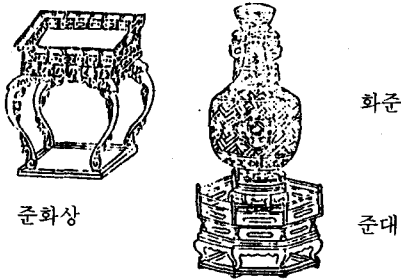


圖 8. 梅花床, 花樽, 樽臺

表 8. 1744年, 1819年 同牢宴所用 기타

1744年		1819年	
玉童子	1雙	玉童子	1雙
		紅細木2幅 袂袱	1件
		入盛唐朱紅漆小檜	1部

준화가 기본이다. 圖 8과 9<sup>50)</sup>는 궁중 진연 時의 준화상, 화준, 준대, 梅花이다. 圖 9를 보면 공작, 대붕, 소붕, 백학이 보이며, 그 밖에 나화초충(풀과 벌레를 그린 비단으로 만든 조화), 실과초충(과일, 풀, 벌레를 그린 비단으로 만든 조화)<sup>51)</sup>도 볼 수 있다.

6. 기 타

2쪽의 고운 무명으로 된 겹보자기로 만든 주머니에 짜서 당주홍칠 작은상자에 담아 보관한 玉童子 1雙이 同牢宴에 반드시 등장하고 있다. 玉童子는 玉京에 있다는 맑고 깨끗한 용모를 가진 가상의 童子<sup>52)</sup>로서 同牢宴에 등장하는 것은 折子에 의한 發願이다. 玉童子는 香串之 香佐兒 옆에, 香佐兒 위에 모셔서 좌우한 쌍을 배설하였다<sup>53)</sup>(前報<sup>53)</sup> 圖 2참조).

III. 맺는말

宮中 嘉禮 中 왕세자 가례시 同牢宴에서 사용한 器用을 宮中食文化와 연결시켜 分析 究明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同牢宴床 右挾床, 左挾床, 面挾床은 黑眞漆高足床이다.
2. 同牢宴床은 鑄弓里 鑄弓里臺具 鎗果器가, 右挾床 左挾床은 鑄弓里 鑄弓里臺具, 面挾床은 鑄弓里 鑄弓里臺具 鑄鍾子 弓里臺具와 같은 고임用 식기가 배설되었다.
3. 大膳床과 小膳床은 黑眞漆大膳床 黑眞漆小膳床이다.
4. 大膳床에는 白大樸匙 小膳床에는 鎗樸匙가 배설되었다.
5. 長空卓은 黑眞漆長床이다.
6. 饌案床은 黑眞漆饌案床이다.
7. 香案 果盤 中圓盤 酒亭 梅花床은 黑眞漆香案, 黑眞漆果盤, 黑眞漆中圓盤, 黑眞漆酒亭 黑眞漆梅花床이다.
8. 味數盤은 黑漆平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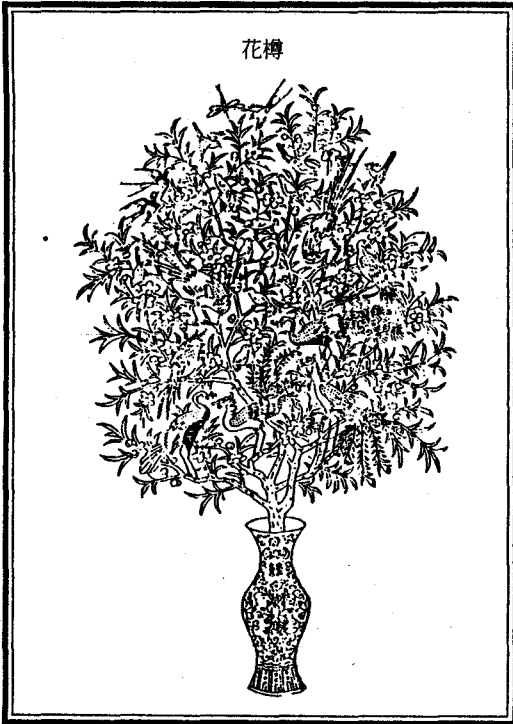


圖 9. 1887年 進饌儀軌속의 梅花

5. 梅 花

준화상 위에 준대와 화준을 올려놓고 화준에 준화를 꽂은 것으로서, 表 7의 공작, 대붕, 소붕, 백학, 나화초충, 실과초충 준화는 梅花 1쌍에 꽂은 梅花이다. 1819년에는 梅花 내용물 중 공작대신 중수과련을 8타, 대붕 대신 대지화를 8타, 소붕대신 소지화를 16타, 백학대신 수과련을 14타로 대신 사용하였다. 즉, 동뢰연에서의 梅花는 공작, 대붕, 소붕, 백학, 나화초충, 실과초충,

50) 李盛兩,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 pp.408, 414, 131.  
 51) 金尚寶, 李盛兩, 御製國婚定例(1749)에 대한 分析의 연구, 1990.  
 52) 上同.  
 53) 金尚寶, 李盛兩,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1991.



9. 同牢宴床 右挾床, 左挾床, 面挾床, 大小膳床, 長空卓, 饌案床, 香案床은 홍색비단상보를 깔았다.

10. 朝見禮 時의 棗栗盤과 服脩脯盤은 小小四方盤이다.

11. 黑漆床은 왕세자, 朱漆床은 왕께 올리는 床으로서,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상의 칠을 적용하였다.

12. 嘉禮同牢宴 時 所用되는 기명은 尊爵用과 음식상차림用 기명으로 나누어지며 尊爵用 기명은 1749年 國婚定禮의 제정 이후 간소화되었다.

13. 同牢宴香案床(爐烟床)에는 향로가 올려지며, 향좌아에는 향꽃이가 올려지고 따라서 香器類는 香案床 향로 향좌아, 향꽃이, 향합이 한 組를 이룬다.

14. 同牢宴 燭器類는 燭籠, 燭대, 燭대부, 剪燭器, 剪燭子가 한 組를 이룬다.

15. 同牢宴花樽床에는 樽臺, 花樽이 올려지며 花樽에는 樽花가 꽃히는데, 준화는 공작, 대봉, 소봉, 백학, 나화초충, 실과초충으로 이루어진다.

16. 기용의 단위는 床에서 內, 部, 立, 坐, 竹 食器에서 部, 竹, 每伊, 面, 箇, 雙, 坐, 立, 상보에서 件, 향기류에서 部, 雙, 坐, 측기류에서 部 雙, 樽花에서 雙 朶가 있었다.

### 참고문헌

1. 李盛雨, 朝鮮王朝行幸食儀軌, 미원 문화재단부설 한국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지원, 1989.
2.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미원 문화재단부설 한국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지원, 1989.
3.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上), 미원 문화재단부설 한국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지원, 1988.
4. 李盛雨, 朝鮮王朝宮中宴會食儀軌(下), 미원 문화재단부설 한국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지원, 1988.
5. 國朝王禮儀序例卷之II, 법제처, 1982.
6. 李盛雨, 동아시아속의 한국고대식생활사연구, 향문사, 1991.
7. 나선화, 소반, 대원사, 1989.
8. 國朝王禮儀卷之III, 법제처, 1981.
9. 名物紀畧.
10.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 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11. 홍정실, 유기, 대원사, 1989.
12. 柳得恭, 京都雜誌, 黃慧性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13.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昭和6年.
14. 金尚寶, 李盛雨, 御制國婚定禮(1749)에 대한 分析的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3, 1990.
15. 朝鮮王朝器皿件記.
16. 國朝續五禮儀卷之II, 법제처, 1982.
17. 이성우, 이효지, 進儀儀軌卷之I, 韓國生活科學研究, 1985.
18. 張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82.
19.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三省出版社, 1983.